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무주군, 농가 역량 강화 집중

농촌자원 분야 총 사업비 2억9000여만원 투입

무주군이 농촌자원 분야에 총 사업비 2억9,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 작업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농가 역량 강화에 보다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효소 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에 주력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효소 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사업은 뿌리채소(생강, 대덕, 도라지)를 활용한 효소 처리 추출물 가공을 위해 사업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 단체와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주민 30명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사업은 농작업 상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사업을 통해서 HACCP 대상 품목 취급 사업장의 위생 안전시설 설치와 컨설팅,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농식품 가공 제품 생산시설과 기구 개선, 유통 지원 및 브랜드 개발, 상표등록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 대상은 농촌관광 사업장으로 사업장 환경을 비롯한 안전시설 개선과 교육 기자재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영농조합법인 등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가 대상으로,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소득 창출에 필요한 작업장과 시설,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063-320-2868)과 각 읍·면 산업팀, 군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농촌자원 분야 시범사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알려 소규모 농식품 가공 농가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는 기반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동계 장수학당 방학 특강 개강

장수군이 우수학생 육성을 위해 개설한 '동계 장수학당 방학 특강'이 11일 개강했다. 장수군 애학교육진흥재단(이사장 장영수)이 운영하는 특강은 관내 중·고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2월 5일까지 총 15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수업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생방향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된다. 방학 특강은 수도권 우수학원 강사진을 활용 국어, 영어, 수학 등 수준별로 맞춤형 보충 교육을 하게 된다. 장영수 이사장은 "장수학당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농기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연내 조성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첨단 신재배 농법으로 농업인 교육에 활용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연내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은 농작물 최적 생산 환경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비롯한 ICT시설·장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 농업인들에게 신영농 기술 재배법을 전수시키는 사업이다.

토마토와 딸기 등을 재배하는 무주 지역 시설농가들에게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국비(1억원)를 포함한 5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환경제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작물 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중 착공해 8월중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새롭게 들어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스마트온실을 비롯해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환경측정 센서,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진안군은 11일부터 중대본·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 업종(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이 그 대상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는 영업을 금지되는 조치를 말하며, 영업제한은 21시(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경우다. 면적 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며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 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가능하고,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세부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전북 콜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전기·능형울타리 설치 비용

장수군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1억5,000만원(지원금 9,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울타리(농가당 500m), 능형울타리 설치(농가당 300m)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경지가 해당된다. 장수군은 이달 29일까지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30농가

를 선정, 농작물 성장기 이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점을 감안, 사전 예방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무주군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무주군은 적상면 과목리 1064-1번지

일원 628필지(40만9,007㎡)를 대상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 치목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억2,000여만원을 투입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전산화 작업을 펼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 해결 및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및 안내절차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참석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사업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원만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 속해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현장에서 받고 있는 상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되는 사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모습)

지역 소식통

장수군,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신청접수

장수군은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어야 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 동안 월 8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독립 경영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조기 영농정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 농축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참신한 청년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8억원을 들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물량은 주택 700동, 비주택 45동, 지붕개량 75동이

며,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자는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2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통보는 3월 2일이며, 이후 담당 공무원 및 공사업자가 현장 방문하여 슬레이트 면적, 동수 등을 확인하여 철거일정 협의 후 군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군은 작년까지 총 1,333동을 철거했으며, 올해부터 5년간 매년 700동씩 총 3,500동 철거를 목표로 슬레이트 없는 청정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